

교회 목표

1. 천국일꾼을 키우자
2. 우리 세대에 민족 복음화를 이룩하자
3.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간 중헌

발행인: 신성종
편집인: 윤명식
편집국장: 손경수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FAX: 563-3932
사서함: 영동우체국 1896호

1992년도 목회 지침 표어: 민족을 위한 제사장 교회가 되자 주제성구: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눅14:23)

'92 교인배가 전도 운동

오늘과 다음 주일에 설명회 가져
11월 첫 주일 총동원 주일로 지켜

'92년 예수 사랑 큰잔치가 오는 11월 1일 배가운동 차원에서 개최된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고, 교회의 부흥과 영적 성장을 위하여, 전 교인들의 영적 각성과 성숙을 목적으로 배가운동 1차 결실의 큰 잔치다.

이날 동원 목표는 교회학교 학생 포함 약 3만5천명이며, 이날은 32개 교회학교 개별 행사를

일시 중단하고, 교회가 마련한 2시간 간격의 7부 예배로 총동원의 결과를 기대한다.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눅14:23)라는 주제성구와 찬송가 255장 "너 시온아 이 소식 전파하라", 그리고 "전하자 예수, 채우자 교회, 키우자 천국일꾼"이라는 표어와 구호로 진행될 이 '92 예수 사랑 큰잔치에 우리 교회 성도는 한 사람도 빠짐

없이 참여해야 한다.

이 일을 위하여 잔치에 필요한 세부 계획 설명회가 오늘은 제직들을 대상으로, 20일에는 전 교인을 대상으로 있게 되며, 필요한 모든 행사의 준비 절차가 계획표에 의해 실천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배가운동본부가 마련한 '92총동원 계획안을 참고하면 된다.

요한전도회
족구대회 개최

요한전도회 협의회(회장 신광철 집사)는 '92년도 족구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각 지회내의 활성화와 전체 회원들의 친교 및 교제를 위하여 매년 개최하고 있는 이 대회는 금년에 새롭게 신설된 5개 지회(18교구~22교구)를 포함하여 22개 지회가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며, 각 지회의 팀워크를 바탕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만남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부터는 우승한 지회에는 트로피를 수여하여 일년간 보관하게 된다.

· 일시: 9월 26일(토)

오후 2시 30분

· 장소: 본당 뒷편 주차장

전국 목회자 세미나
제5학기 내일 개강

전국 목회자 세미나 제5학기가 내일 개강 예배를 드림으로써 10주간의 일정을 시작한다.

우리 교회 부설 한국교회성장연구원(원장 신성종 목사)의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 세미나는 "목회와 교회 성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국 목회자들의 영적 성장과 교회 부흥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세미나는 우리 교회 신성종 목사의 제1교시 빌립보서강제가 있던 후 주제에 따른 강의가 제2교시에 진행되며, 강사로는 이종성 박사, 김삼환 목사, 임영수 목사, 홍정길 목사, 김충기 목사, 정진경 목사, 조용목 목사, 김동익 목사, 나경일 목사, 김홍도 목사가 수고하게 된다.

공 동 의 회

- 일시: 9월 13일 4부예배후
- 장소: 본당
- 안건: ① 제27대 장로 장립의 건
- ② 김창인 원로목사 노회 공로목사 추대 청원의 건
- 참가: 충현교회 세례교인

충현프리즘

①...우리 교회 설립 39주년을 기념하는 축하음악예배가 지난 9월 6일 오후 5시 본당에서 있었다.

이날 기념음악예배의 찬양은 할렐루야찬양대(대장 이훈 장로)의 합창과 충현오케스트라 반주에 의해 모짜르트 곡 "대관식 미사"가 약 30분간에 걸쳐 연주되었다.

자비를 구하는 기도로부터 시작하여 대영광송 "주님의 영광

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 주님께 감사"의 찬양, 신앙고백과 "거룩하시다", 그리고 "복있도다", "하나님의 어린양" 순서로 은혜롭게 찬양이 울려 퍼졌다.

더운 여름 땀흘려 연습한 할렐루야찬양대와 충현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수고에 격려를 표하며, 지휘자와 반주자의 열연에 경의를 표한다.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아름다운 찬양은 참석한 성도들의 가슴을 감동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정말 멋있게 잘했다.

②...주일 저녁찬양예배를 오후 5시로 변경하여 첫번째로 실시한 지난 주일은 예상외로 많은 성도가 참석했다.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나 찬반 양론이 비등했지만 대체적으로 온 교우들이 좋은 반응을 보였고, 오랫동안 저녁 예배에 참석했다는 호뭇한 정경도 보였다. 일부 대학부나 청년부 집회는 오후 집회 관계로 시간이 모자라 당분간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해당 부서는 집회 시간을 좀 더 앞당기고, 효율적인 시간 배열로 집회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면 좋겠다.

③...우리 농산물 먹기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도 감자 1천 상자를 팔아주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펼쳤다. 농촌이 살고 이웃이 복음화 되는 것은 배운 대로 실천하는 사랑의 표현이다. 협력한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카메라 초점



▲ 올해로 교회 설립 39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는 설립 기념 주일인 지난 9월 6일 기념음악예배를 드리며 이제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 사랑부는 개교 4주년을 맞아 기념예배 및 작품 전시회, 교사 간담회를 가졌다.

92년도 제2학기 장학금 전달

장학회(회장 김의철 장로)는 92년도 제2학기 장학생들을 선발하고 지난 9월 6일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이번에 지급된 장학금은 충현 장학금이 천2백5십만원, 소석 장학금이 7백만원, 신학원생 장학금이 7백2십만원, 사랑의 장학금이 4백만원, 위탁장학금이 2백8십만원을 총 3천7백8십2만원이고, 모두 88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다.

교회가 천국일꾼을 양성하는 장학사업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기도와 물질적 후원이 기대된다.

장학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① 소석장학생
염현일, 오정성, 홍경호, 이영미, 김경희, 김정임, 조성희, 지의미, 장명순, 이미리, 정재용, 김상호, 박희성, 박태진

② 충현장학생
정관호, 박송이, 김민호, 김은숙,

조현숙, 이하늘, 박지혜, 조혜진, 이지수, 이기엽, 이길찬, 김유희, 최혜리, 이오복, 강서기, 최연희, 이성일, 임성이, 정상미, 염혜선, 이요한, 김범진, 박동석, 박선정, 오선호, 조우현, 윤유선, 은동환, 왕승원, 임필아, 김수희, 구혜경, 조충현, 박영재, 최철훈, 김은주, 안의정, 김홍열, 김성열, 김은선, 김병훈, 송석희, 육동훈, 권순평

③ 위탁장학생

장수진, 최진, 남은우, 김광석, 임채석, 하은실, 박재범, 김재우

④ 신학원장학생

김준택, 한재웅, 안경애, 한광숙, 유재덕, 김필수, 정갑신, 이준우, 김복남, 신진철, RaJa, Jacob Kim

⑤ 충현 사랑의 장학생

이승아, 하태동, 전찬웅, 노두승, 성미경, 김철희, 성영주, 이종열, 김범석, 김정훈



충현강단

신성종 목사

남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마7:1~6)

사탄이 사용하는 네 가지 무서운 무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첫번째는 가장 무서운 교만이라는 무기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교만으로 인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으며 그 이래로 사람들은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사탄에게 넘어갑니다.

두번째 무기는 낙심입니다. 스스로를 비하시키는 것이 바로 낙심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것을 가리켜 절망이라고 했고 동시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세번째 무기는 무관심입니다. 주위의 사람이 어떻게 되는 자기와 자기 가정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이 무관심을 불러 일으킵니다.

네번째 무기는 열심입니다. 열심이 잘

되지 말라는 뜻이고 혹평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비판의 원어는 크리노입니다. 이 말은 영어의 크리티칼과 같이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선과 악을 날카롭게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을 보면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들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파악해야 합니다.

2.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

우리들은 남을 비판해서는 안됩니다. 비판하는 일은 정말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마치 소

귀면 자신에게 새로운 비판이 따라옵니다. 비판의 표적은 나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로, 다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비판을 해서는 안됩니다.

참된 비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비판을 삼가해야 합니다.

본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크리노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구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3. 비판의 종류

첫번째로 가장 무서운 비판은 영원한 비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하늘 보좌 앞에서의 심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때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는 구별이 될 것입니다.

두번째는 신자로서 무엇을 판단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에는 섬기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초대 교회 당시 사람들 가운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 바울이 지적했던 것입니다(고전11:27~29).

세번째는 보상의 심판입니다. 우리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각각의 공력을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롬3:14).

4.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마음에 상처주는 비판보다 사랑의 권면 필요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마7:4, 5)

사람은 먼저 자기의 큰 잘못을 회개해야 합니다. 눈에서 티나 들보를 뺀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로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굉장히 쓰리고 아픕니다. 눈에 들보나 티가 들어 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것을 빼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고치려고 할 때 내가 필요합니다. 감정으로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또 지혜롭게 처리해야 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서 참된 주님의 뜻을 배운 후 사랑 안에서 진실된 말을 해주어야 합니다(엡4:15).

그것이 작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

나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들은 바다에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 바다는 어디에서 물이 내려오든지 배척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변질될 것 같지만 오히려 잘못된 것을 회식시키고 중화시킵니다.

5. 결론

첫째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볼 때에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야 합니다(갈6:1).

둘째로, 자신의 죄부터 회개한 후에 이웃을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다른 사람이 잘못을 범할 때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해주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일 뿐만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넷째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하면서 사랑으로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마7:6)

이 말씀은 앞에서 한 것과는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개나 돼지 같은 인간에게 주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을 해야 할 필요도 있지만 겸손하게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웃을 사랑으로 권면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신성종 목사 저서<

신약총론	CLC
신약신학	CLC
요한계시록강해	도서출판 엠마오
로마서강해	도서출판 엠마오
사도행전강해	도서출판 엠마오
기독교의 ABC	도서출판 엠마오
초급 헬라어	총신출판사
신약역사	신행협회
엠마오 성경연구	도서출판 엠마오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못된 방향으로 빠지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맙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즈음 한참 떠돌고 있는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열심이 있는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이단 사설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면 바울의 사울 시절처럼 나쁜 일을 하는 데 앞장서게 되고 맙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내용은 열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열심있는 사람이 비판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1. 비판하지 말라는 말의 뜻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마7:1)

주님께서서는 비판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원리와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오해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못본 체, 모르는 체 넘어가라는 뜻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거짓과 진실 중 하나를 택할 때나 선과 악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할 때와 같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참된 뜻은 비난하기를 좋아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정죄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정죄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교만하게 남을 정죄할 때 이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마는 것입니다.

정죄는 자기 의를 나타내보이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사람에게 보이는 일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남을 정

죄하지 말라는 뜻이고 혹평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 현재밖에 보지 못합니다. 언제나 일부분만을 보는 것이 인간입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는 인간은 과오를 범할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서는 비판하지 말라, 즉 정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정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지만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립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비판의 위험성을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증오심이 많습니다. 자신과 다른 그룹의 사람들에 대해 비판을 하는 것은 증오심의 발로입니다. 또한 비판은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비판을 부추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비판하는 일을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로,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하여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죄함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비판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들이 남을 비판할 때, 즉 미움과 증오심에서 남을 비판할 때 그 비판은 곧 나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알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심판을 당한다는 것을 틀림없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비판의 표준을 설정하기 때문에 비판을 해서는 안됩니다.

때로는 자신이 하는 비판이 옳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입장이 바

●●●●
특별기고

기독교인의 사회 참여

김영삼 장로(세계선교위원)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본격적인 전도가 시작된 후에 지방 관료들이 서북 지방에 부임하기를 꺼려했다고 합니다. 그 까닭은 서북 지방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부당한 수탈을 할 수 없었으며 사사건건 관여하여 따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시비비를 따지는 예수꾼들의 등쌀에 수령 방백들이 골치를 앓아야 했으므로 차라리 예수꾼들이 많지 않은 남도 땅으로 보내달라고 중앙 정부에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조선 왕조 말기에 그렇게 극심한 수탈을 자행하던 탐관오리들도 기독교가 성한 고을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전도가 시작되자마자 곧 불의에 항거했고 봉건 관료들의 권력 남용에 정면 도전했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기독교인들이 불법으로 감금되어 재판도 받지 않고 장기간 구속되어 있는 사례에 대해서도 시시비비를 가려서 죄가 성립되면 법에 의해 벌을 받고 무죄하면 석방하라는 요구를 했던 기록도 한국 교회사의 초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얼마나 활발하게 사회 참여를 했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개인의 영혼 구원은 물론이러나와 성경의 가르침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기독교가 전도된 곳에서는 야학을 했고, 기독교가 전도된 곳에서는 계몽운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기독교가 전도된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미신 타파를 했고, 기독교가 전도된 곳에서는 새생활운동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기독교는 애국하는 종교요 민족을 사랑하는 종교라는 인식은 식자간에 널리 알려졌던 사실입니다.

국운이 쇠하여 나라의 주권이 일본에게 넘어가려고 했을 때도 교회를 중심으로 기도회를 하며 나라의 장래에 대하여 함께 염려했던 사실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하여 읽을 수 있습니다. 초기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이 같은 일을 극히 자연스럽게 했고 당연한 행위로 받아들였습니다. 나라가 망하여 일본 제국의 식민 통치하에 들어갔을 때에도 교회는 민족 주권 회복을 위한 산실요 교두보 역할을 했습니다. 에스더의 애국 정신을 포함한 민족 자존의 의지를 성경을 통하여 몸에 익혔기 때문입니다. 포로 생활의 악조건 속에서도 조국의 재건 의지를 불태우고 있던 이스라엘 청년들의 애국 정신이 바로 한국 교회의 현실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는 민족을 이끌고 적지를 나와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복지를 향한 행군을 영도하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있었고, 이 출애굽의 비전은 우리 민족의 해

방의 의지로 불타오르게 했던 것입니다.

세계 기독교의 신앙 공동체와 연대 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자부심은 용기가 되었고 이 용기는 보다 적극적인 행동으로 발전했던 것입니다. 3·1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이 땅 방방곡곡에 퍼진 것도 기독교인들의 순수한 애국심의 발로였기 때문입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어린 여학생들의 마음속까지 나라 사랑의 불이 타오른 것은, 성경 속에서 에스더의 목숨을 건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의 마음이 타오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3·1운동을 전후하여 나이 어린 여학생들의 활약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유관순의 이야기는 당시 한 예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 날의 증언을 들어보면 그때는 모두가 유관순이었다는 것입니다.

심훈의 소설 <상록수>에 나오는 주인공 영신의 이야기도 기독교인 한 여성이 얼마나 지극한 애국 애족의 사상에 심취해 있었는가를 단적으로 표현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시킨 것도, 강요한 것도 아닌데 자발적인 희생 정신으로 나라를 일으켜 세우려고 울부짖던 당시 강인한 여인상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누구라도 나라 사랑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 자존을 회복하는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대학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사회 산업 기관을 세우고 하는 것도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닙니다. 금주 운동을 했고 미신 타파 운동을 했고 계몽 운동을 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있는 곳은 어디를 가도 이러한 운동이 번져갔습니다. 이 운동은 교회가 권장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인 까닭에 이 운동에 참여하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겸약 절제하는 생활을 통해서 얻은 재물을 나라와 민족과 사회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무서운 구두쇠가 되기까지 하면서 나라의 장래와 민족의 장래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요즈음은 사회 참여 운동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때는 사회 참여라고 특별히 생각하고 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하지 않을 수 없어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욕이 가슴 밑바닥

에서 샘솟아 올랐던 것입니다.

반도 경영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을 침략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년에는 이 같은 기독교인들의 행위가 심히 못마땅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있는 한 식민 통치가 어렵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모두 반식민주의자들이었고 그 힘을 집약하는 곳이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식민 정책자들이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획책하게 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여전히 신앙 운동과 동시에 민족주의운동을 펴는 데 뒷받침이 되었으며 야학 운동과 협동 조합 등을 끈질기게 펼쳐 나갔습니다.

일제가 교회를 탄압하기 위하여 본격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실행에 옮긴 첫번째 사건이 '105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 날조된 사실이 폭로되었지만 잔혹한 고문을 통하여 사건을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의하여 전도된 예수 교회는 불순한 교회이기 때문에, 일본의 조합 교회가 총독부의 정치 자금을 받아 조선 선교를 한다고 했던 것도 교회가 사회 참여를 자발적으로 해가는 힘을 약화시키려는 한 음모였습니다.

정교 분리하는 말은 일제 식민지 총독 정책 때 끈질기게 나왔던 말입니다. 한국 교회의 선교적 역할을 분쇄하기 위하여 침략자들이 즐겨 사용한 말입니다. 종교와 정치의 불간섭주의는 강한 편이 약한 편을 탄압하기 위하여 나온 말이 아닙니다. 상호 보완 관계에 더욱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제는 자기들의 목적을 위하여 상호 불간섭주의를 내세워 선교의 영역을 봉쇄하려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 까닭에 봉사하는 것이 신앙 행위가 되고 있습니다. 남을 위하여, 대의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행하는 종교입니다.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 사랑의 행위를 금하는 것은 신앙 생활을 빼앗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웃을 위한 봉사, 사회를 위한 봉사, 국가를 위한 봉사, 민족을 위한 봉사가 곧 기독교인들의 신앙 생활인 동시에 사회 참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1운동 때 목숨을 걸고 나선 것도 이와 같은 사랑의 봉사의 일환이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진리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 위에 더한 사랑이 없나니"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병든 자와 가난한 자와 옥에 갇힌 자를 돌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6·25사변이 났을 때 한국 기독교인들은 많은 일을 했습니다. 세계 기독교 봉사회를 통한 구제 사업은 말할 것도 없고 전쟁 고아들을 돌보고 전쟁 미망인들의 생활 터전을 마련해 주고 천재지변으로 당하는 정신적인 충격을 최소한으로 줄여주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했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전쟁 고아를 돌보는 일도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돌보았습니다. 전쟁 미망인들을 위해서 모자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이군인들을 돌보는 일도 했습니다. 국가가 미처 어떻게 해 줄 수 없을 때 교회가 자진하여 이 일을 맡고 나섰습니다.

야전병원을 찾아 다니며 부상 용사들을 위로해주기도 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팔레를 맡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수를 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권유나 요청이 오기 전에 이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평신도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도 야전병원에 스스로 찾아가서 장병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군에 편입되어 군목이라는 직제가 요즘은 생겨났지만 초창기에는 봉사를 자청해서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군번도 없이 전사한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군중제도가 마련되어 모든 종교가 다 참여하고 있지만 기독교의 희생적인 자진 봉사 행동의 결실의 하나였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는 일입니다.

봉사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서나 언제나 찾아 나서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기쁨이고 보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부르기 전에 먼저 나섰습니다. 때문에 기독교의 선교의 영역은 한없이 폭이 넓은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애국심이나 기독교인의 애족 정신이 곧 선교의 철학이고 신학일 수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겨레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겨레를

사랑하는 마음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기독교인의 마음입니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 위에 더한 마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랑의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곧 사회 참여입니다. 근자에 와서 우리 나라에서 정교 분리라는 말이 자주 사용됩니다.

나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자진해서 소록도를 찾아가는 어느 간호원의 이야기를 어디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아니면 누가 가겠느냐고 찾아갔는데 벌써 자기보다 먼저 와서 봉사하는 선배가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일 오후면 전국의 교도소에는 한 두 사람의 여인들이 연고가 없는 무기수나 사형수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일을 자기 신앙 양심의 발로에서 하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 알아 주는 사람이 없어도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남이야 알아 주든지 말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값 없이 받았으니 그렇게 나누어준다는 말 한 마디로 묵묵히 살아가고 있더니 실로 성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같은 일은 누가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정부가 관직을 준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재벌이 돈을 나누어 준다고 해도 될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가 찾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소명 의식만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국 교회도 다윗의 죄악상을 깨우친 나단 선지자와 같은 직언을 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의 소망인 동시에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기 없이는 말할 수 없는 것이 선지자적 목소리입니다. 용기있는 목소리는 민족을 재생시키는 능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섭을 위한 간섭이 아니라, 도저히 어쩔 수 없어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세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회 참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족사의 맥락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역을 실현시키는 일이야말로 기독교인들이 사양할 수 없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의 사회 참여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오늘 우리 사회 속에는 모세처럼, 에스더처럼, 나단처럼, 세례 요한처럼 불의를 보고 고발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손을 보고...

임경숙 성도(청년3부)

주님을 사랑하고 싶었으나 추한 고집, 아집,
교만으로 병들어진 자아!

겸손대신 오만으로 옷 입혀진 자아를 버스에
실었다.

복잡한 생각을 떨쳐 버리고 싶었으나
그것 역시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을 직감하며
목적지를 향해 달리고 있는 자아!

도착과 더불어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 내렸던 것은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어루만짐이었다.
계획없이 오랜 기간 동안 집을 떠나게 하신
주님이 역사하신 것이었다.

준비기도 없이 떠났기에 조금이라도

섬을 주지 않으셨던 주님!

주님은 나에게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케 하
셨다.

그건 한 어린이의 기도하는 모습이었다.

어찌나 신실한 모습으로 기도를 드리는지

내 가슴은 그때부터 두근거리며 쥔해오고...

나는 내 병든 자아를 조금씩 발견할 수 있었
다.

무릎을 꿇고

고사리 같은 두 손을 꼭모아

가슴을 향해 조금 들어올리고...

그 어린이가 주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나이까.
주님!

철 모르는 아이도 주님을 향해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드리는데
저는 뭘니까?

1, 2분의 짧은 광경은

나의 추한 자아를 여지없이 짓밟아 버렸던 것
이다.

주님의 나를 향한 놀라운 은혜였다.

상처하나 없이 시들시들 아파했던 자아는
회복되어 가고 있음을 느꼈다.

복음전하는 것이

주님의 진정한 뜻이며 명령이었으나

한번도 순종해보지 못했던 나

이젠 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것 또한

주님의 진정한 뜻이며 명령이었으나

한번도 순종해보지 못했던 나

이젠 하게 하소서.

주님!

깨닫게 해주셨으니 실천하게 하옵소서.

바른 교육

어느 곳에 한 부부가 살았다.
그들은 자식을 낳아 온갖 정성을
다해 양육했다.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 온갖 희생을 다했다. 그 과
정에는 피눈물나는 고통도 따랐
었다. 그들은 자식에게 무엇이나
주고 싶었다. 직장에 다니면서 번
돈도 다 자식을 위해 사용했다.
교육을 시키기 위해 하나밖에 없
는 집을 팔아서 등록금을 대주었
다. 퇴직할 때 받은 돈도 자녀를
위해 기쁘게 주었다. 남은 것이라
고는 작은 셋방과 늙어서 능력 없
고 초라한 물골뿐이다. 그의 자식
은 부양의 부담을 주는 그 부모에
대하여 괴로워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자식에게 짐
이 되고 있는 스스로를 미안하게
생각하며 더 주고 싶은 데도 줄
것이 없어서 괴로워했다.

이 부부의 자식을 향한 한 없
는 사랑을 생각해보자. 십자가에
서 죽기까지 하신 사랑을 조금을
알 듯하지 않은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자라나는 세대를 올바
른 사랑으로 교육하자는 것이다.
사랑이란 달라는 욕구를 무조건
채워주는 것만은 아니다. 예수님
께서도 때로는 신앙 양심의 채찍
으로 잘못된 길로 들어가는 우리
를 채찍질하신다. 올바른 교육은
말씀으로 다져진 신앙의 토대 위
에 건전한 교육을 통해 터득된 지
성이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인
격자로 키우는 것이다. 어떤 사람
은 지성과 덕성과 행위의 일치가
곧 인격의 기준이라고 한다. 그러
나 말씀의 기반 없는 인격은 참
인격이라고 할 수 없다.

(원 집원)

입시생을 위한 학부모 기도회

우리 교회는 입시생들이 얼마 남지 않은 수험 준비 기간 동
안 입시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월 14일부터 입
시생을 위한 학부모 기도회를 다음과 같이 갖기로 하였다.

· 일시 :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전 10시

· 장소 : 베다니홀

● 구역예배 ●

(1992. 9. 18)

성도의 헌금 생활

· 본문 : 고린도후서 8장 1절~9절

· 찬송 : 346장, 361장

· 요절 : 고린도후서 8장 5절

“우리의 바라던 것 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헌금의 중요성에 대하여 모르는 성도들은 드물 것입니다. 한편으로 헌금에
대하여 강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사실 헌금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 생활의 일면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솔
직한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을 보면 참으로 감사와 자원함
으로 드리기보다는 부담과 의무감이 앞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
면 성경은 성도의 헌금 생활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 헌금은 하나님의 필요가 아닌 성도의 신앙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일반적으로 헌금의 액수는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나타낸다고 말하곤 합
니다. 그리하여 헌금을 또 다른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헌금을 미신적이고 기복적인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헌금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헌금의 액수를
떠나서 헌금에 참여하는 자체는 바로 예배 행위이며, 이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부터 받은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헌금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2. 풍성한 헌금은 주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한 감사에서 나타납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하여 교훈하면서 마게도냐 교회의
모범을 상기시킵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한 가
난에 쪼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풍성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풍성한 헌금은 물질

의 부요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에서 나타났
습니다. 그러나 헌금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물질보다도 우리 자신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하
나님께 열납되어질 때,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열납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
야만 합니다.

3. 부요하신 자로서 낮아지신 예수님의 성육신은 헌금 생활의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모든 부요함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
은 스스로 가난과 궁핍함에 자발적으로 복종하셨습니다. 종으로 낮아져 말구
유에 탄생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 자신이 가난
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함이었습니. 이러한 주님의 모범은
우리의 헌금 생활에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 역시 헌금이나 물질적인 봉사에 있어서 인색함이나 억지가
아닌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결론

누군가가 말하기를 “불신자의 인생이 얼마를 벌었느냐에 관심을 가진다면,
성도의 인생은 얼마를 하나님께 드렸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듯이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은 그대로 헌금 생활
로 나타난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당신의 헌금 생활은 어떻습니
까?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모범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 적용 및 기도

1. 구역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생활에 인색하지 않고 감사
함으로 하게 하소서.

2. 성육신 하신 주님의 모범을 헌금 생활 뿐만 아니라 모든 삶 속에 실천하
는 자가 되게 하소서.